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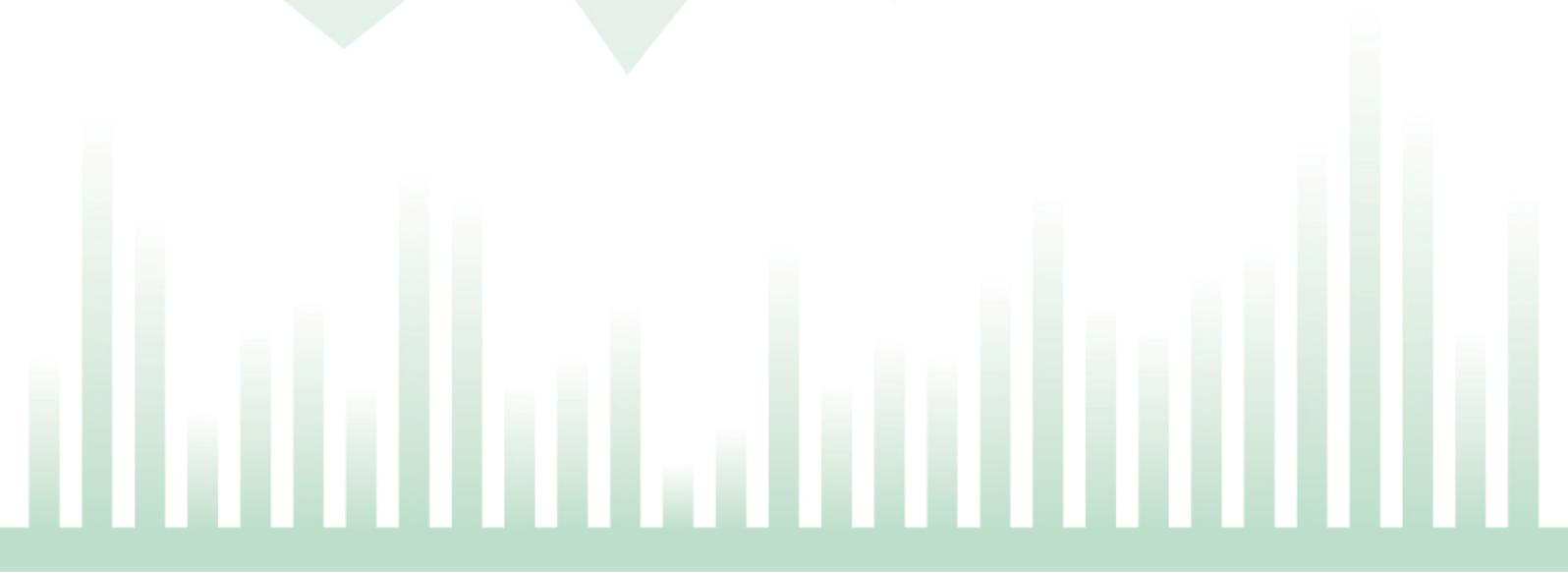
경제포커스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하여

정 창 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근 부동산 문제와 정책방향

김 현 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하여

정창무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jung8134@uos.ac.kr

국제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최근 동향

- IMF경제환란을 겪은 우리사회는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국제금융산업을 주목하고, 국제금융산업과 국제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동북아금융허브구상과 국내 은행들의 국제금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짐.
 - 1999년 04월 01일, 대한민국정부,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원으로 국제금융센터 설립』
 - 2003년 05월 14일, 서울시, 『AIG에서 여의도에 국제금융센터 건립 제안』
 - 2003년 06월 28일, 서울시, 『서울시, AIG와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2003년 12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재정경제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 2005년 01월 03일, 한국산업은행, 『아시아 개발 및 산업은행협의체(ADIBA·Association of Development &Industrial Banks in Asia)를 출범』
 - 2005년 01월 06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중국·일본간의 동북아 개발금융협의체(ECA) 구성을 추진』
 - 2005년 01월 27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등 3개 기관을 통합한 자본거래 시장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출범』
 - 2005년 02월 24일, 한국은행,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한국의 힘 확인』 : 24일 외신들은

전날 세계 금융시장의 대 달러 환율 폭락 소식과 함께 “투자대상 통화 다변화를 적시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달러 움직임의 방아쇠를 당겨”

- 2005년 02월, 청와대 경제보좌관실,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
- 2005년 03월 02일, 국회, 『한국투자공사법 통과』: 정부가 보유한 외환 중 10%인 200억 달러를 외국 주식·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정부가 1조원을 전액 출자하는 형식으로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
- 2005년 03월 10일, 한국외환은행, 『한중일 금융연대 구축...외환영업 독보적』 -외환은행의 장기비전은 중국, 한국, 일본 3국을 묶는 금융허브를 구축.
- 2005년 03월 17일, 대한민국정부, 『IDB 47번째 회원국 가입...중남미 진출 교두보 마련』
- 2005년 03월 17일, 투기자본감시센터, 『브릿지증권 이사들과 이 회사의 대주주인 BIH, 이들과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한 리딩투자증권 이사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금융산업이 성장하면 고용창출효과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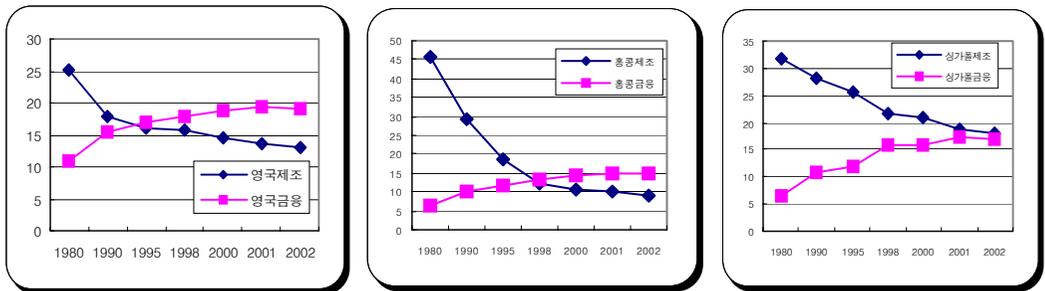
- 금융산업과 고용에 대한 가장 큰 우려중 하나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고용없는 성장』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점임
- 특히 IMF경제난 이후 국내은행에서 단행된 급격한 구조조정과정은 이러한 우려를 보다 심화시킨 바 있음
 - 금융산업이 발전한 대표적인 나라로서 싱가포르, 홍콩, 영국의 사례를 보면,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감소함과 동시에 금융산업 종사인력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탈공업화사회,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고용구조의 변동이 발생하면서, 제조업 분야의 고용감소를 금융산업분야의 고용증가로 상쇄하고 있음

<표 1> 주요국 산업별 인구 비율 추이(%)

구분		1980	1990	1995	1998	2000	2001	2002
영국	제조	25.2	18.0	16.1	15.9	14.4	13.7	13.1
	금융	11.0	15.4	16.9	18	18.7	19.3	19.2
홍콩	제조	46.0	29.5	18.5	12.2	10.4	10.0	9.0
	금융	6.4	10	11.8	13.1	14.1	14.7	14.7
싱가포르	제조	31.6	28.2	25.6	21.6	21	18.8	18.2
	금융	6.5	10.7	12.0	15.7	16.0	17.2	17.1

출처: UK National Statistics, Singapore Ministry of Manpower, HKMA, KNSO

- 싱가포르의 최근 20년간 신규고용 창출규모를 보면, 제조업이 8만 2,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반면, 금융관련산업은 24만 4천여개의 고용을 창출해 제조업의 4배에 이르는 고용을 창출하였다는 점을 살필 수 있음
-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산업구조조정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지식산업인 금융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일인당 국민소득의 급격한 향상도 이룩할 수 있었음



<그림 1> 영국, 홍콩, 싱가포르의 제조업 및 금융업의 비율현황

<표 2> 싱가포르 산업별 신규 고용 창출 규모(기간 : 1980~2001)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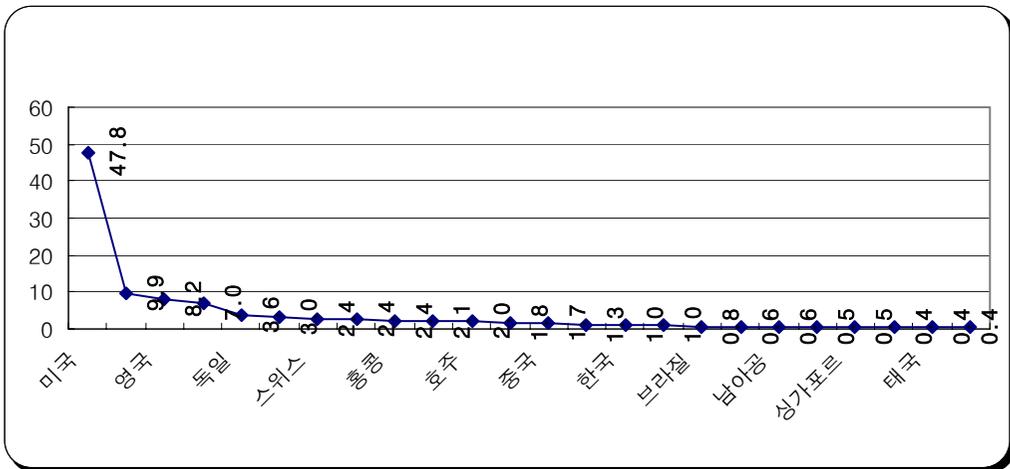
제조업	건설업	상업	운송통신	금융관련 산업	합계
82.8	186.1	173.1	73.4	244.0	1041.9
(7.9)	(17.9)	(16.6)	(7.0)	(23.4)	(100.0)

출처: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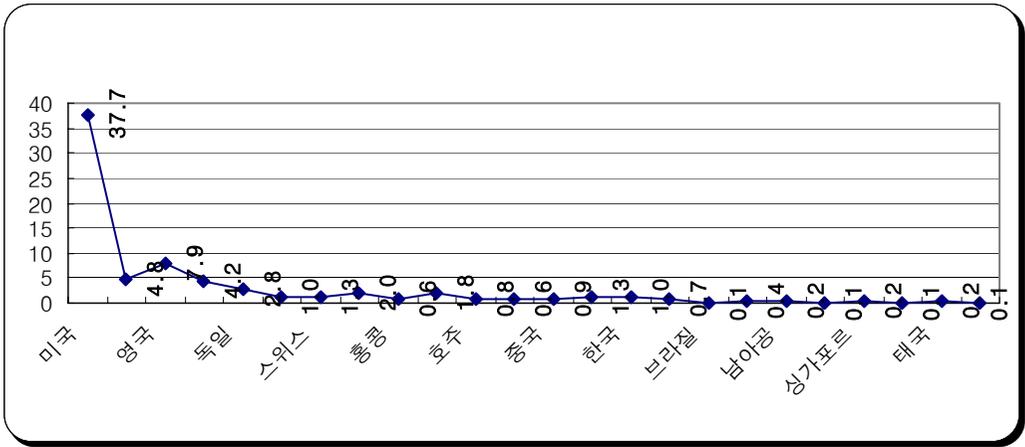
○ 금융산업의 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되고 있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 주식시장거래규모, 채권시장규모, 은행의 자산규모와 외환거래액, 파생상품거래액 등임

- 상위 24개국을 대상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비교하면, 주식시장의 경우 가장 큰 미국이 우리나라의 48배 규모이며, 일본이 10배, 영국이 8.2배, 프랑스 7배, 독일 3.5배로 나타남
- 아시아 국가의 경우 홍콩이 2.4배, 중국 1.7배, 대만이 1.3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각각 0.5배 규모. 특히 미국 주식시장규모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43개국 주식시장 주기총액의 84.23%에 달하는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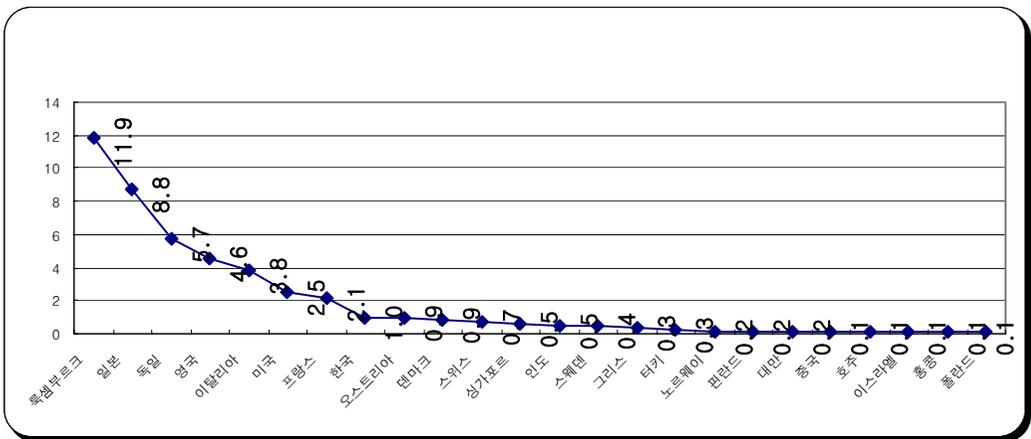
<그림 2> 상위 24개국 주식시장 비교(한국 15위 / 44개국 중)

- 상위 24개국의 주식거래량 규모를 비교하면, 주식시장 규모가 영국보다 큰 일본의 주식거래량규모가 영국의 60% 규모이며, 주식시장규모가 우리나라의 7배에 달하는 프랑스의 주식거래량규모는 우리나라의 4.2배에 불과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거래규모가 주기총액에 비해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살필 수 있음
- 아시아 국가간의 비교에 있어서도, 주기총액이 우리의 1.7배가 되는 중국의 주식거래량 규모는 우리나라의 90% 수준이며, 주기총액규모가 우리나라의 50%에 해당하는 싱가포르의 주식거래량규모는 우리나라의 20% 수준에 불과



<그림 3> 상위 24개국 주식거래량 규모 비교(세계 9위 / 44개국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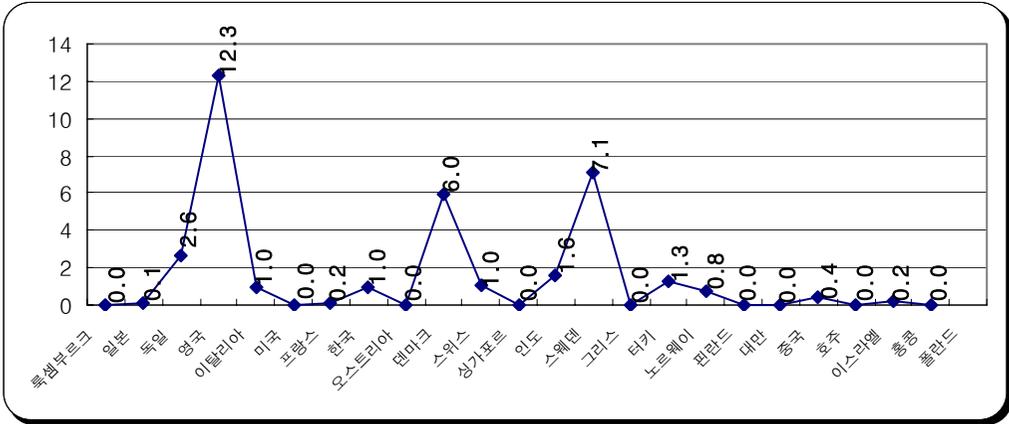
- 상장채권가치로 파악한 채권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룩셈부르크이며,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8위의 채권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음
- 싱가포르가 우리나라의 70% 수준이며, 중국과 홍콩은 우리나라의 20% 수준



<그림 4> 상위 24개국 채권시장 규모비교(세계 8위 / 44개국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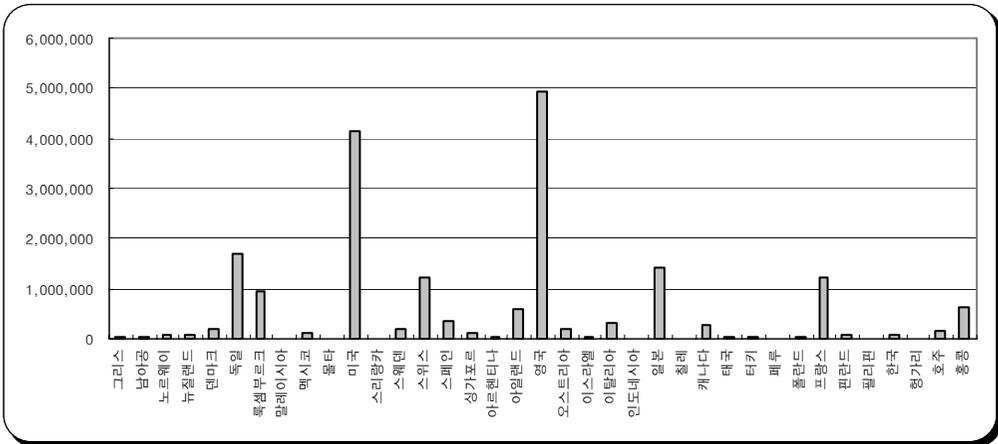
- 채권거래량 규모의 경우 영국과 스웨덴, 덴마크, 독일, 터키가 우리나라에 비해 12.3배, 7.1배, 6.0배, 2.6배, 1.6배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채권거래량 규모가 유사한 나라로는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있음

- 영국의 경우 상장채권가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채권거래가 활발하며, 일본의 경우는 반대로 채권거래량 규모가 우리나라의 1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거래량 규모가 미미



<그림 5> 상위 24개국 채권 거래량 규모 비교(세계 8위 / 44개국 중)

- 은행의 자산규모에 있어서는 미국과 영국이 세계시장의 절반이상. 우리나라 은행의 자산규모는 홍콩의 10% 수준, 일본의 5% 수준이며,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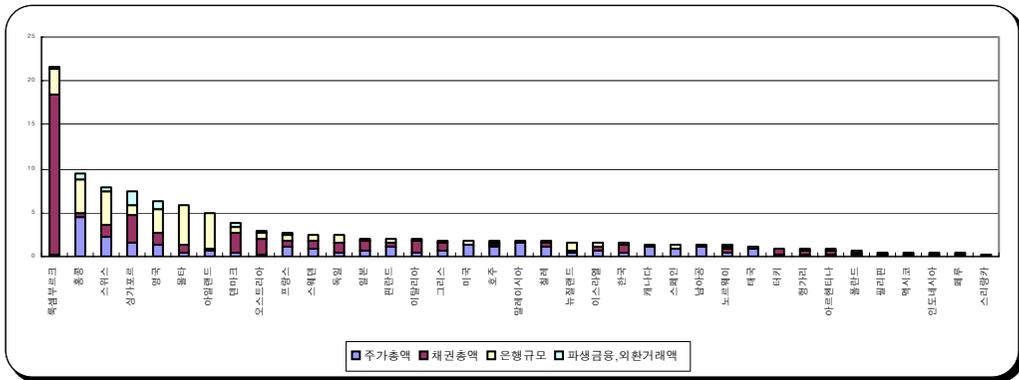
<그림 6> 각국의 은행자산 및 부채 비교(단위 : 백만달러)

출처: www.imf.org - Bank asset, Bank liabilities (2002)

- 외환거래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1%이며, 인접한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준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산업 발전도에서는 룩셈부르크가 1위, 홍콩,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조사된 37개국 중 23위를 차지.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 순위 11위에 비해 금융산업의 발전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음을 시사



〈그림 9〉 세계 금융종합순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성장가능성이 있는가?

○ 서울을 국제금융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발전시키기 위해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 금융산업 성장의 가능성 유무임

- 다음의 두 표는 국가별 주식거래규모와 채권시장규모를 GDP와 대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거래규모는 GDP의 75.83%, 채권시장규모는 84.23%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발달이 미흡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시사
- 하지만, 금융시장의 발전과 성숙을 추진할만한 우리 내부의 역량은 충분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이 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99년 4월 23일 개장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선물거래실적 자료를 검토함)
 -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규모는 2003년을 기준으로 주식거래액 기준 세계 11위(509,877백만 달러), 채권시장규모 기준으로는 세계 8위(509,877백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지만,

1) http://www.krx.co.kr/webkor/about/history_futures.jsp#top

설립 4년차였던 한국선물거래소의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는 금액 기준으로 세계 5위(5.5조 달러)를 달성한 바 있음

- 특히 파생상품 거래부문(계약건수)로는, 2000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거래소간 통합으로 인해 급격하게 성장한 Eurex와 Euronext 등을 앞지르는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성장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목임

〈표 3〉 국가별 주식거래규모 및 GDP대비 점유율

(단위: 백만달러, 2003년 기준)

순위	국가	주식거래규모	GDP 대비
1	미국	17,322,982	157.69%
2	영국	3,609,718	200.70%
3	일본	2,221,254	51.64%
4	프랑스	1,936,573	110.39%
5	독일	1,299,327	53.95%
6	스페인	933,060	111.06%
7	이탈리아	820,642	55.79%
8	스위스	610,362	197.25%
9	대만	591,718	206.91%
10	캐나다	471,544	54.39%
11	한국	459,035	75.83%
12	중국	396,252	28.11%
13	호주	371,970	73.19%
14	스웨덴	303,291	100.51%
15	홍콩	296,156	186.74%

출처: <http://www.world-exchanges.org/WFE/home.Asp?nav=ie> 의 자료를 재구성

〈표 4〉 국가별 채권시장규모 및 GDP대비 점유율

(단위: 백만달러, 2003년 기준)

순위	국가	채권시장규모	GDP 대비
1	룩셈부르크	6,044,037	1837.28%
2	일본	4,462,898	103.74%
3	독일	2,920,169	121.24%
4	영국	2,341,720	130.20%
5	이탈리아	1,934,133	131.49%
6	미국	1,272,000	11.58%
7	프랑스	1,085,057	61.85%
8	한국	509,877	84.23%
9	오스트리아	464,135	183.04%
10	덴마크	433,541	205.65%
11	스위스	364,852	117.91%
12	싱가포르	276,195	302.37%
13	인도	266,495	46.32%
14	스웨덴	221,152	73.29%
15	그리스	170,559	97.99%

출처: <http://www.world-exchanges.org/WFE/home.Asp?nav=ie> 의 자료를 재구성

<표 5> 국가별 금융파생상품 거래소 순위(거래액 기준)

순위	거래소	국가	2001	2003	2003
			백만달러	백만달러	% share
1	Chicago Mercantile Exchange	USA	291.2	333.5	38.1
2	Euronext.liffe (1)	UK	142.7	283.4	32.4
3	Chicago Board of Trade	USA	43.2	86.4	9.9
4	Eurex	Germany	42.4	72.5	8.3
5	The Korea Stock Exchange	Korea	5.5	23.2	2.6
6	Singapore Exchange	Singapore	20.9	21.4	2.4
7	Chicago Board Options Exch.	USA	13.9	14.2	1.6
8	Sydney Futures Exchange	Australia	6.2	9.8	1.1
9	Tokyo Stock Exchange	Japan	7.5	7.2	0.8
10	Montreal Exchange	Canada	3.1	5.5	0.6
11	Bolsa de Mercadorias & Fut.	Brazil	4.6	3.7	0.4
12	Tokyo Int. Fin. Futures Exch.	Japan	6.3	3.7	0.4
13	Osaka Securities Exchange	Japan	1.6	2.3	0.3
14	Mercado Mexicano de Deriv.	Mexico	0.1	1.6	0.2
	Other exchanges		5.3	6	0.7
	Total		594.4	874.1	100

(1) LIFFE는 4개국 통합증사인 Euronext에 통합되었음

출처: <http://www.bis.org/> 의 자료를 재구성

<표 6> 각 국가별 파생상품 거래 순위(계약건수 기준)

(단위 : 백만건)

순위	거래소	국가	2000	2003
1	The Korea Stock Exchange	Korea	213.5	2899.9
2	Eurex	Germany/Switz.	454.1	1014.9
3	Euronext.liffe (1)	UK	619.1	695.0
4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	USA	231.1	640.2
5	Chicago Board of Trade	USA	233.5	454.2
6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USA	326.4	283.9
7	International Securities Exchange	USA	7.5	243.9
8	American Stock Exchange	USA	207.7	180.1
9	Sao Paulo Stock Exchange	Brazil	30.7	177.2
10	Mercado Mexicano de Derivados	Mexico	1.4	173.8
11	Bolsa de Mercadorias & Futuros	Brazil	82.9	113.5
12	Philadelphia Stock Exchange	USA	76.5	112.7
13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USA	88.7	108.7
14	The Tokyo Commodity Exchange	Japan	50.9	87.3
15	Pacific Exchange	USA	108.5	86.2
16	Shanghai Futures Exchange	China	8.3	80.2
17	London Metal Exchange	UK	66.4	72.5
18	Stockholmsborsen	Sweden	53.9	72.1
19	EDX London	UK	-	65.5
20	SFE Corporation	Australia	31.3	44.8

출처: FOW tradedata

국제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입지행태방정식

- 국제금융거점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우리사회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사항중 하나는 국제금융기업의 국내 유치임. 정책의 성패를 전망하는 국제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입지행태를 실증적으로 규명
- 인구 규모는 국제금융기업의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가총액의 경우에는 10대 금융기업 총진출수, 법률회사, 광고회사 등의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간 주식거래 총가는 컨설팅회사,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진출을 설명
 - 주식시장 상장사수는 컨설팅회사와 신용평가기관, 손해보험사의 입지를 설명
 - 상장채권가치가 클수록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진입이 제약되지만, 법률회사의 진출은 활성화
 -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입지유인으로 작용, 채권시장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외환보유와 FDI는 국제금융기업의 유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액이 클수록 은행과 법률회사 광고업체의 진출이 많지만, 수출은 국제금융기업의 유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
 - 해외직접투자(outflow)액은 회계법인과 은행에 입지유인으로 작용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에는 업종간 입지대체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은 컨설팅과 자산운용, 은행, 광고회사 등에서 미국은 컨설팅과 은행입지에서 특별한 비교우위를 가짐
 - 한자문화권 국가는 10대 국제금융기업과 은행의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자산운용과 관련된 자산운용사나 증권 신용평가기관, 법률회사의 진출에 특별한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일본의 경우 신용평가기관과 손해보험분야에서 해외금융기업 유치가 부진
 -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금융관련 기업의 진출은 다른 나라들의 진출패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법률기업의 경우에는 한국이라는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각국별 진출 국제금융기업 행태방정식 결과 요약

변수	10대 금융기업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인구	-2.53E-06	-8.40E-08		-6.18E-09	-1.2177E-8	
일인당GDP	0.00462	0.0008423	0.0003134	5.932E-05	7.152E-05	0.00232
GDP	0.75403	0.02715	0.00762			
Brics더미			-16.88812			190.65537
영국더미	1595.1737		24.72401		5.45203	1453.1326
아시아더미				3.07361		
중국더미						
싱가폴더미				5.20476	4.354	
홍콩더미				6.72427	6.13994	
손보본사더미				3.89177	3.20354	390.6683
생보본사더미			-9.12153	-2.95395	-1.63761	252.93422
국제거래시장		6.24247	5.58343	1.80555	1.11749	
한국더미						
GDP^2						
GDP^3				9.04E-11	1.05E-10	
미국더미			119.27634			4042.3367
수정결정계수	0.8661	0.6896	0.9019	0.9707	0.9675	0.8895

* 이탤릭부분은 a level =< 0.1 이하, 나머지는 =<0.05 이하

변수	신용평가기관	손해보험	생명보험	법률회사	광고회사	부호
인구	-1.24E-08		-8.77E-07	-1.61E-08		-
일인당GDP		1.60E-07		3.451E-05	0.00116	+
GDP	0.00376	0.000538	0.24702	0.00572	0.04907	+
Brics더미		-0.01627			-60.68097	-,+,-,-
영국더미					212.05558	+
아시아더미						+
중국더미						
싱가폴더미	1.9719			7.59278		+
홍콩더미	1.92542			6.86957		+
손보본사더미	-0.55732	30.44968	-148.0389	2.79223		+,+,+,-,+,-,+
생보본사더미	-2.42705	-41.19323	94.69739	-2.05339	-23.27098	-, -, -, +, -, -, +, -, -
국제거래시장	0.30823	19.28288	-43.69665		18.35066	+,+,+,+,+,+,+, -, +
한국더미				-4.78318		-
GDP^2						
GDP^3						+
미국더미			-1386.651			+,+, -
수정결정계수	0.9191	0.4254	0.3244	0.904	0.8814	

* 이탤릭부분은 a level =< 0.1 이하, 나머지는 =<0.05 이하

정책적 시사점

- 국제금융산업의 육성을 통해 「굴뚝없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영국, 홍콩,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보듯 금융산업은 고용창출과 소득향상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금융 산업은 금융 선진국과 비교하여,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며, 성장을 추진할 내부 역량도 구비된 상태임
- 국제금융기업의 입지경향은 기본적으로 국제금융기업을 유치하는 국가의 자본시장 발전 정도에 비례함. 서울을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의 확대와 성장이 뒷받침 되어야 함
 - 국제금융기업은 진출국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진출함. 서울을 국제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성장과 육성을 통하여, 국내에 진출한 해외금융기업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 해외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발전이 중요하며, 채권시장의 발전은 해외증권사나 해외자산운용사의 유치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
 - 외환보유액 규모나 해외직접투자금액이 크다는 것은 국제금융기업의 유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를 선도부문으로 하는 국제금융산업 육성전략은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함

참고문헌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Singapore Ministry of Manpower
 UK National Statistics
http://www.krx.co.kr/webkor/about/history_futures.jsp#top
<http://www.world-exchanges.org/WFE/home.Asp?nav=ie>
www.bis.org -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2004)
www.imf.org - Bank asset, Bank liabilities (2002)